

‘군공항 이전 국가 지원’ 명시 특별법 개정 주목

박준택 의원 올해 4월 대표발의
이전지역 지원·종전부지 개발비
정부 재정·정책 지원 근거 명시
지난달 법률안 심사소위에 회부
6자 TF 이전 합의로 속도 기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담보 상태에 놓였던 특별법 개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준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3년 4월 제정된 현행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와 각종 특례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하거나 응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지보전부 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 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전지역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도시기금의 우선 지원 근거 역시 신설됐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지방재 발행 한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다.

군공항 내 미군시설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협상과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군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 시행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향후 미군시설의 이전부터 개발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고사리 손으로 모은 ‘사랑의 동전’ 18일 광주 북구 매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년 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금함 개봉식에서 직원들과 코리아유치원 아이들이 1년간 모은 우유팩 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 모아진 모금액 95만6천400원은 연말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애리 기자

‘여객기 참사 179명 희생자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시, 26-27일 1주기 추모 행사

공연·음악회 등 유가족·시민 위로

광주시는 오는 26-27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사고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들,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호,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선보인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무대에 올라 ‘쥘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피날레는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래퀴엠 ‘진흔’이 장식한다.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 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

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6세 이상 (2020년생 포함) 관람가로 전석 무료다.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유료 회원 선(先) 예매가 시작되며 일반 회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티켓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슬픔→기억→위로→연대’의 흐름으로 구성해 각자가 고인을 떠올릴 시간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첫 무대인 사무엘 바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절제된 선율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담아 애도의 시간을 연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작가 황석영이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하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마지막 무대는 구스타프 말리의 ‘교향곡 3번 제

6악장’으로 장식한다.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문장으로 알려진 이 곡은 말리 작품 중 가장 내밀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조용한 연대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27일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2018년생)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다.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유료 회원 선 예매가 시작되며 일반 회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번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Today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활성화 대안은? 6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 이야기·‘뒷담화’ 14면

투수 ‘올러’ 재계약 고민하는 이유는? 16면

“‘김대중공항’ 명칭 무안군민과 상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시점은 무안 군민과 충분히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 했다. ▶관련기사 3·4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항 명칭 변경은) 소관 부처인 국토 교통부와 협의하겠지만, 무엇보다 무안군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과 관련, 현장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직접 들어오는 문의도 많을 만큼 호응이 좋다”며 “기능하면 빠르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11월 4자 사전협의 때 제가 처음 (김대중공항을) 언급했고 모두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라는 입장장을 밝혔다”며 “김산 군수와 군민들도 적극 수용해 대통령실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관련 확보된 전체 사업비는 5천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3천350억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부족분은 약 2천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여기에는 국가산단 조성비 7천615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포함하면 국가가 무안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가산단 하나 했으니 다른 건 안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국가산단 조성비는 별도로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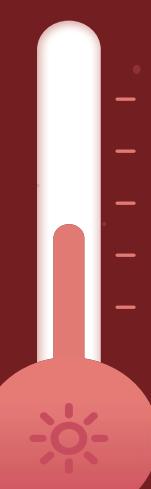
김 지사는 “무안군에 대한 기본 지원방향이 제시됐다”며 “주가 사업이 필요할지는 무안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안군과 협의를 거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C



난방온도
1°C ↓
월 5,150원



온도
설정하기
월 10,300원



에너지소비율
1등급 제품 사용
월 5,391원



안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끄기
월 778원

전기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 고객 중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한전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ON(QR) 접속 / 한전사업소 방문

지급액 절감량 따라 30~100원/kWh



가스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조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신청 포털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 공식 홈페이지(QR) 접속

지급액 절감량에 따라 50~200원/m³

기간 ’25년 12월~’26년 3월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기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에너지 사용량 감축(전기/상수도/도시가스) → 인센티브 수령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및 신청(회원 탈퇴 시까지 참여)

